

## ■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시각예술) 제작지원단 공모사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지역예술도약지원(시각예술) 제작지원단
- 회의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14:00~16:00
- 회의장소 : 온라인 줌(zoom) 회의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기혜경, 김영동, 박수진, 이윤희, 이현(총 5인)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시각예술) 제작지원단 공모 사업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 문화재단이 2024년 지원한 작가 중, 지역문화재단이 추천한 작가 14명 내외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예술도약지원(시각예술) 사업을 실행할 제작지원단을 선정하는 공모사업이다. 이에 따라, 제작지원단은 지역 예술 도약 지원사업(시각예술)에 선정된 작가들의 창·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프로모션 하며, 필요한 기획 자문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작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작지원단을 선정하는 2025년 공모사업에는 총 7개의 단체가 응모하였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터뷰 심사로 나누어 진행된 심사의 평가기준은 1, 2차 동일하게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의 부합성' (30%),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의 타당성' (30%), '사업 수행 역량' (40%)이었다. 통상적으로, 2차 심사에는 최종 선정단체 수의 1.5~2배를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지만, 이번 심사 대상의 경우 각자 드러내는 특징들이 확연하여 인터뷰 심사대상을 3배수로 올려 진행하여 최종 1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각 지역에서 모일 14명의 작가들은 각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각자 필요로 하는 것 혹은 해결해야 문제가 다를 것인데, 선정된 단체가 작가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 및 협업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과정에서 최우선으로 살폈다.

응모한 단체 모두 특·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작가의 프로모션을 전시에 집중하여 생각한 단체가 많았다는 점이다. 미술계에 진입하여 자리 잡아가고 있는 작가들은 기술적인 측면, 홍보, 협업 방식, 창·제작에서의 난점, 전시개최 등 각자가 서로 다른 문제들에 봉착하여 고민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작가들의 필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가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지원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시각예술) 제작지원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일동